

www.artin.or.kr

THE ART OF INCHEON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21년 제32호



FACO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애뜻한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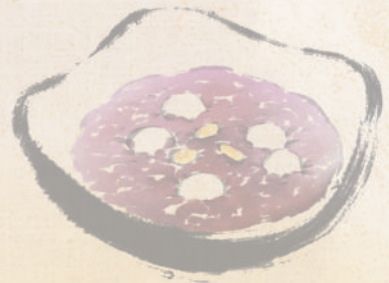
동지(冬至)에는 끓는 팔죽이 있다, 펄펄 날리는 그 향기에
남쪽의 소문이 곧 도착하겠다

농익은 붉은 홍시를 후후 불며
까치가 까치밥을 먹고 있다
감나무우듬지에도 곧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어스름 달빛 창호 문에 스미듯
겨울한 모가지,

아직 자니?
문 앞에 밥상 놓고 가니 따뜻할 때 한술 뜨거라,

여러 장의 이력서를 복사하고 있는 막내에게 최초의 따뜻한 기별인 듯
파동으로 가득한 동지 팔죽



당신은 명년에도 밭이랑에 콩과 팥을 심으시겠다

한 구멍에 세 알씩, 한 알은 땅 속 벌레에게
또 한 알은 하늘 짐승에게

또 남은 한 알은, 가슴에서 싹트고 옆구리에서 자라나
붉은 문장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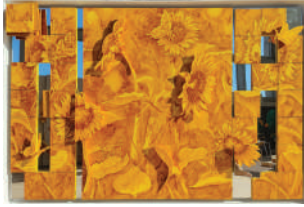
입성 까다로운 동장군이 풀릴 듯 풀릴 듯
한 그릇의 온기로 어둠던 얼굴들이 빛나게도 하니

엄동嚴冬에 뒷마당을 기웃거리는 날짐승들
끼니 걱정 없는 푸른 계절이 곧 도착하겠다.

김현주

2007년 <시선> 등단
시집으로 <페르시안 석류> <好好 해줄게> <유채꽃광장의 증언>
숲속의 시인상, 시인들이 뽑는 시인상 등
2018년, 2021년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금 수혜
인천문인협회 회원





(Space-Sunflower) 최철

영혼을 맑게 하는 예술지

예술인천

2021년 제32호
Contents

표지제호 · 글빛 박혁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심사역인
수원대학교미술대학원 서예전공 겸임교수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이사
남동구문화예술회 회장
한국신지식인
빛갤러리 대표

발행인 | 이종관

기획·주관 | 김호진

편집장 | 이목연

편집부 | 김호진, 신은경

취재진 | 배천분, 김호진, 신은경

감 수 | 배천분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 (사)한국예총인천광역시연합회

221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인천수봉문화회관 2층)

전화 | 032)873-5174, 872-7873

팩 스 | 032)872-5551

홈페이지 | www.artin.or.kr

이메일 | artincheon@nate.com

펴낸곳 | 진원디자인프린트

영혼을 맑게하는 예술전문잡지 『예술인천』
은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술인천』에 실린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사)인천예총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창을 여는 詩

애뜻한 물입 | 김현주 4

커버스토리

Space-Sunflower | 최철 8

지상갤러리 10

인천미술협회

특집

2021년 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의 얼굴들 21

기획조명

2021 인천문학상 수상자 한연순 시인 29

인천에 한국 춤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무용가- 무용협회 민영민 무용가 33

FACO STAGE

‘2021 힐링콘서트 시민 걸로’ 39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 45

THE ART OF INCHEON



지상갤러리 2

인천사진작가협회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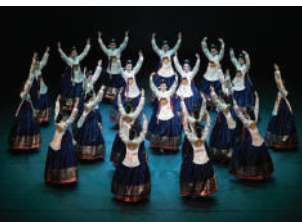


기획 특집 - 예술경영 리더십

리더로서 나의 연주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60

예총동정 / REVIEW & PREVIEW

인천예총 및 각 협회 65



편집후기 90



COVER-STORY

• Space-Sunflower •



Space-Sunflower 99×62cm, Oil on canvas, Mixed media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해바라기는 생명력과 행운, 자신의 존재가치를 뜻하기도 하며 황금색은 욕망에 가까운 색이기도 하다. 그림과 오브제를 혼합한 구조를 통해 상호간의 아이러니를 찾고자 했으며 캔버스와 거울의 이질적인 공간 안에서 또 다른 이미지의 중첩을 시도했다.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실재가 아닌 가상의 이미지로, 이미지는 허구이기에 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욕망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된다. 타자가 만들어 놓은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해바라기의 이미지를 통해 투영해 보고자 했으며, 화면 가득 황금색이 주는 풍요로움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욕망이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거울을 통해 나타내려 했다.

최 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9회, 아트페어 5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연3회특선, 경기도전 대상, 인천미술대전 대상수상 법무부장관상 표창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초대작가, 경기도미술대전 심사, 초대작가 인천미술대전 심사, 초대작가



지상갤러리

The Art of Incheon



자작나무



전운영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졸업
- 개인전 31회 (서울, 인천, 일본)
- 대한민국미술대전, 단원미술대전, 인천미술대전, 경기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심사
- 現) 인천미술협회 회장, 신미술회, 서울아카데미회, 여명회, 인천시초대작가, 부평구예술인협회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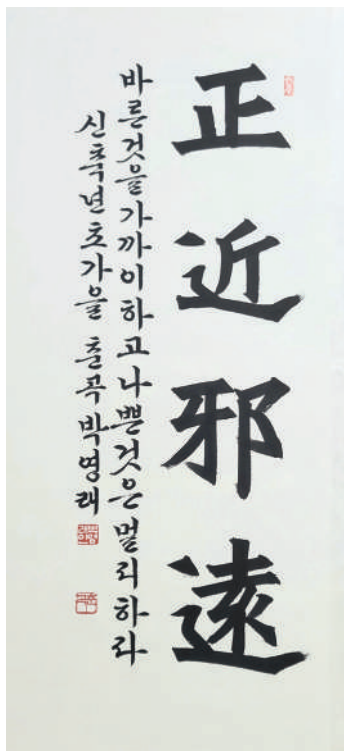


만남



명노선

- 개인전 4회, 부스전 3회
- 2021 제72회 인천미술협회 회원전 외 미술단체전 다수 참여
- 2021 한마당전 운영위원장 역임
- 現) 16대 미술협회 부지회장, 2021 인천아트페스타 운영위원장



正近邪遠(정근사원)



박영래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인천미술대전/ 경인미술대전 초대작가
- 연수구예술인연합회/연수구서예협회: 회장
- 인천광역시 미술협회 부지회장
- 춘곡서예학원 운영



바람이 분다



박진이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동양화 석사
- 개인전 23회 아트페어 및 기획초대전 300회
- 2021 치유적풍경-휴돈화문갤러리 기획초대전
- 2018 영국Artrooms Fair Seoul 세계아티스트 공모선정(리베라호텔)
- 現 인천미술협회부회장, 인천미술초대작가, 인천여성작가연합회 회원.



기다림



이남숙

-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 9회
- 대한민국수채화공모전 심사, 경인미술대전 심사.
- 계양미술공모대전심사 운영위원, 한국수채화 아카데미 심사.
- 現) 한국수채화협 지역이사, 대한민국 수채화협회 인천지회장, 인천수채화협회장, 창조미협, 일목회, 부평미술인회, 물빛 회장



봄날



이상연

- 인일여고, 인천대학교 한국화전공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제3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대상수상, 초대작가
- 제51회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대상수상, 초대작가
- 제11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 종합대상수상 초대작가



시공간-2



이의재

- 개인전 10회
- 중국청도 국제예술비엔날레
- 금강미술대전 심사위원 · 대전MBC주최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 한국미협주최
- 인천미술대전 심사위원 · 인천미협주최
- 인천시초대작가, 한국미협회원



갯벌 2021



이태경

- 인천미술협회 사무국장, 캠프갤러리 관장
- 국민예술협회 인천지회 이사 및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계양예술인협회, 인천사생작가회, 푸른쪽빛회 회원
- 개인전 및 부스전 5회, 그룹전 70여회



知過必改 得能莫忘(지과필개 득능막망)



장동조

- 한국미술협회 인천지회 서예분과위원장
- 인천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예협회 회장
- 인천광역시 청운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예강사
-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서예강사



바이올린



최명자

- 개인전 12회(인천, 창원, 횡성)
- 부부전 12회(인천 진주, 서울), 부스 전 8회(인천, 서울, 북경, 오사카)
- 초대전, 기획전, 단체전 다수 출품
- 現) 한국미협, 인천미협 한국화분과 위원장, 인천미술대전초대작가회, 한국화여성작가회, 인천여성작가회, 인천한국화회, 일수회, 동상이몽, 연수미협, 환경미협 회원

특집

• 2021

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자의 얼굴들

The Art of Incheon

2021 인천예총 예술상 수상의 얼굴들

글·편집부

(사)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이종관, 이하 인천예총)는 2021년 12월 15일(수) 15시,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인천예술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예술인을 위한 『제30회 인천예총 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예술상’, ‘공로상’, ‘신진예술가상’, ‘인천광역시장표창’, ‘인천광역시의회외장표창’ 중 ‘예술상’ 수상자 5명과 공로상 등 각 부문별 1명을 초청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예총 예술상』은 매년 각 분야에서 애향(愛鄉) 인천의 예술문화 진흥 및 발전을 위해 혁혁한 공로가 있는 예술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9개 회원협회(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연극·연예·영화·음악)와 강화지회에서 추천한 수상대상자를 대상으로 5개 부문(예술상, 공로상, 신진예술가상, 시장표창외장 표창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예술상 - 김용녀(국악), 박송우(미술), 곽준석(사진), 곽은순(영화), 우미영(음악), 공로상 - 한재호(무용), 태동철(문인), 안순동(연극), 이상명(연예), 신진예술가상 - 박규희(국악), 나형우(무용), 차영현(미술), 김남규(연극), 김주희(음악, 90년생) 이상 14명이 선정되었고, 시장표창 - 성기형(사진), 최경희(연극), 박성균(영화), 김명희(연예), 김주희(음악, 92년생), 시의회외장표창 -

이영숙(국악), 민영민(무용), 손성란(문인), 선은희(미술)가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예술상 시상식과 더불어 지난 11월 5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힐링 콘서트 시민 곁으로』의 수익금과 후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인천 예술인에게 창작후원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달식을 가져 따뜻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2021 인천예총 예술상 부문 수상자



국악부문 김용녀 1947년생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활동함으로써 인천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각종 경로 위안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복지재단 장애인 요양원 등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어려운 지역에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알리는데 공헌도가 큼.

- 현 능허대 예술단 단장
- 현 연구 자원봉사센터 국악예술단장



미술부문 박승우 1941년생

1965년부터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많은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인천미술발전을 위해 여러협회 회장직과 이사직 등을 역임하며 미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 수채화의 대가로 문화예술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고 인천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큼.

- 현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계양미협 고문
- 계양구 문화예술인협회 초대회장



사진부문 박준석 1950년생

1998년 입회 후 활발한 작품 활동과 전국의 사진대전 및 공모전을 100여 회 심사활동 및 명신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으로 교육의 발전과 인천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사진인 양성 등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으로 그 공적이 높이 평가됨.

- 현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 제물포사진대전 초대작가



영화부문 곽은순 1955년생

인천영화인협회 회원으로 협회 창립 다음 해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협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에 탁월한 활동을 하였으며, 협회의 모든 행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인천영화인협회 예술상 후보로 추천함.

- (사)인천영화인협회 이사
- 2019년 인천영화인협회 단편영화 “전국은 비” 출연



음악부문 우미영 1984년생

첼리스트 우미영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인천뉴필하모닉 수석으로 활동. 인천을 빛내고 있는 우미영 첼리스트는 인천음악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현악 앙상블을 이끌며 인천의 클래식은 물론 클래식과 재즈를 접목시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고 현대음악에 가까운 퓨전 클래식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로가 인정됨.

-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석사 및 Performance Diploma
- 현 인천음악협회 이사

2021 인천예총 공로상 부문 수상자



무용부문 **한재호** 1984년생

지난 2013년 인천무용협회의 기획 및 사무업무 총괄로 본 협회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 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인천의 무용예술기획자로서 무용예술을 인천시민에게 알리고, 여러 단체를 전국 무대로 소개하는 등 인천의 문화예술 특히, 무용예술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함.

- (사)한국무용협회 사무국장
- 창무국제공연예술제 사무차장



문인 **태동철** 1939년생

인생 제2막의 삶에서 인문학적 사고의 확충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며 그 실행의 결과물이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천 지역사회의 문화적, 인문학적 위상 제고에 공로가 현현하여 이를 표창함. 후학들의 전범으로 삼을 동기부여와 인천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에 공로상 수상자로 적극 추천함.

- 現 사단법인 웅진문화원 원장
- 現 한국문인협회 인천지부 이사



연극부문 **안순동** 1969년생

30여 년간 연극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인천 연극협회 회원 및 부회장으로 인천연극 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 現 인천연극협회 정단원
- 극단 인도 대표



연예예술 **이상명** 1974년생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타고난 예능의 재질을 사회에 연결 환원시킴으로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공이 크고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대중문화 예술 공연에도 혼신을 다하여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로임

- 現 인천연예예술인협회 사무국장
- 現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문화관광 위원

2021 인천예총 신인예술상 부문 수상자



국악부문 박규희 1995년생

2002년 인천무형문화재 제21호 경기12잡가 이순희 선생님께 입문하여 현재까지 인천에서 국악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경시대 활성화를 위한 국악프로그램 재개관식, 인천시민의날 힐링콘서트, 인천포크페스티벌 프린즈, 인천 동아시아축제 등 인천시민을 위한 공연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함.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1호 경기12잡가 이수자
- 인천광역시 예술강사



무용부문 나형우 1995년생

지난 2021년 10월, 30주년을 맞는 전국무용제 인천광역시 솔로&듀엣 부문 대표로 참가하여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작품과 연기로 우수작품상을 수상하여 인천광역시 무용예술을 전국에 알린 바 신진예술가상에 추천함.

- 제30회 전국무용제 Solo&Duet부문 우수상 수상
- 현 인천무용협회 회원



미술부문 차영현 1969년생

한국미협 회원, 인천미협 한국화분과 이사, 계양미협 회장, 계양아트갤러리 관장 등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하였고, 올해 12월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 등 활발하게 미술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음.

- 현 인천미술협회 한국화분과 이사
- 계양미협 회장, 계양아트갤러리 관장, 아르떼본떼 회장



연극부문 김남규 1995년생

인천의 연극예술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인천연극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에 추천함.

- 현 인천연극협회 회원
- 뮤지컬 나는 나비, 가무극 궁예:잠룡등천 외 다수



음악부문 김주희 A 1990년생

음악적 재능과 클라리넷 연주가 훌륭한 김주희 이사는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인천음악협회 관악이사 그리고 연수구립관악단 악장으로도 활동중. 솔리스트에 가까운 실력과 음악성으로 인천의 관악발전에 모범이 되고 앞으로 인천 음악을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임.

- 현 연수구립관악단 단원, 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 현 인천음악협회 이사

2021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자



사진부문 **성기형** 1950년생

2018년 입회 후 활발한 작품활동과 ‘빛온새미로’ 사진동아리를 이끌며 사진인 양성에 헌신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진협회의 사업간사로 활동하며 인천지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함.

- 제60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동상
- 제천지회 전국사진공모전 동상



연극부문 **최경희** 1968년생

극단 집현의 대표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극단을 이끌며 전국규모의 연극제 수상, 2021년 제36회 대한민국연극제의 심사위원 위촉 활동, 지속적인 국내창작활동, 해외공연활동 등 국내외 예술 문화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하여 수상 후보자로 추천함.

- 현 극단 집현 대표
- 현 인천연극협회 이사



영화부문 **박성균** 1972년생

2008년부터 본 협회 정회원으로 협회와 인천예총, 영화아카데미 교실, 미추홀영화제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기자로 협회의 발전과 협회의 위상 제고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였고 청소년 선도와 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임하였기에 연기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추천함.

- 현 인천영화인협회 부회장
- 미추홀필름페스티벌 행사 운영위원



연예예술 **김명희** 1960년생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가수 활동을 하면서 타고난 예능의 재능을 사회에 연결 환원시킴으로서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공이 크고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대중문화공 연에도 혼신을 다하여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익을 담당한 공로임.

- 현 인천연예예술인협회 가수분과위원장
- MBC ‘인간시대’ 무명가수의 노래 주인공 출연



음악부문 **김주희 B** 1992년생

클라리넷 연주가 김주희는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마쳤고 현재는 인천음악협회 관악이사 그리고 예술인 연합회 사무국장 재직 중. 학교 강사로 출강하며 인천 음악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이므로 시장표창 수상에 적극 추천함.

- 현 인천 연구구립관악단 단원
- 현 (사)인천음악협회 이사

2021 인천광역시회의회의장 표창 수상자



국악부문 **이영숙** 1950년생

전통음악에 뜻을 두고 민요부문을 전공하여 전통음악과 인천예술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으며, 인천 시민 문화예술 향유 및 경료호친의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 등 인천의 예술인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함.

- 2021 전국국악경연대회 심사위원
- 현 인천국악협회 이사



무용부문 **민영민** 1973년생

오랜기간 인천에서 활동해 온 무용가로서 인천 계양구에서 문화예술위원, 예술단 운영위원, 독립 무용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아울러 인천무용협회의 이사로 활동하며, 인천에서 한국무용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노력을 기울임.

- 현 인천무용협회 이사
- 계양산국악제 운영위원



문인 **손성란** 1964년생

인천문인협회 회원 및 아동문학분과위원장으로 한글날 행사, 시화작품 게시, 회원작품 원고교정, 지역문인교류전 협조, 각종 대회 심사, 청소년수련원의 문예행사 지원, 동시작품 단체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함.

- 현 인천문인협회 정회원 및 아동문학분과 분과장
- 동시집 「초등놀이학교」로 한국아동문학회에서 오늘의 작가상 수상



미술부문 **선은희** 1960년생

인천미술협회 사생작가회 사무국장으로서 야외 스케치 활동을 기획 및 관리하여 안전한 사생회 활동과 회원의 화합에 기여함. 인천미술협회의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책임자로서의 계획 수립 및 일정 관리 등 인천미술협회 모든 전시 운영에 기여함. 인천미술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어 추천함.

- 현 인천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 현 인천미술협회 사생화작가회 총무

The Art of Incheon

기획조명

- 藝仁 포커스

〈인천문인협회〉

인천문학상 수상자 한연순 시인 13년 만에 네 번째 시집 『분홍 눈사람』 출간

글·배천분 인천문인협회 사무국장



인천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 인천문인협회에서 제33회 인천문
학상을 받은 한연순 시인을 만났다.

13년 만에 출간한 네 번째 시집 『분홍
눈사람』은 한연순 시인에게 인천문학상이
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다.



분홍 눈사람
예술가 시선 28

예술가 | 2021년 11월 15일 출간

1. 어린 시절을 흐르는 고향의 따뜻한 강과 산

어린 시절을 보낸 동진강은 지금까지도 내 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언제나 맑고 윤슬이 구르던 강은 나에게 무한한 정감과 상상력의 보고였다. 어린 날 나는 강 물속을 들여다보며 모래무지와 놀았고, 여름밤이면 별이 천천히 강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강줄기 앞을 드리워주던 산은 놀랍게도 이름이 시산(詩山)이었다. 나는 눈 쌓인 산을 혼자 오르기도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가 스며들던 시간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강가에 앉아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강을 따라 흐르던 햇살과 별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걸 느낀다.

2. 문학을 하게 된 동기

내가 처음 시를 쓴 것은 강 건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열린 여름 성경학교 때였다. 그때 신학대학에 다니던 선생님, 지금은 이름조차 잊었지만, 그 선생님께서 내가 쓴 동시를 보고 많은 칭찬을 해주었고 격려의 상을 주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과 산과 들판이 벗이었으니 자연과 놀면서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미나리짱 실지렁이, 논길 밭길마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뱀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던 기억, 자운영 꽃밭에서 보낸 한나절, 송사리 떼, 개구리울음, 메뚜기 떼, 새를 쫓던 원두막. 모두가 나의 놀이터였고 놀잇감이었다. 학교만 끝나면 들과 산과 강에서 사계절을 놀았다. 아마도 유년의 감수성이 이어져 지금까지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대학 진학 때 부모님의 반대로 국문학과를 진학하지 못하고 교육대학에 입학해 교사가 되었지만 나는 시를 떠나지 못했

다. 마흔이 넘어서야 대학원을 진학한 뒤 본격적으로 시를 쓰면서 등단 후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내 문학의 뿌리는 유년 시절의 감수성에 발을 뺨으며 꽃을 피웠다.

3. 시집『분홍 눈사람』 발간 후 달라진 점

13년 만에 네 번째 시집 『분홍 눈사람』을 출간하면서 많이 힘이 들었다. 그동안 써놓은 정리되지 않은 시들은 빛이 바랬거나 마모됐거나 혈액순환이 안 된 채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힘을 써 보기로 했다. 묵은 시들을 폐기하느라고 폭염 속에서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비로소 시집 『분홍 눈사람』이 내게로 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기쁨이 솟았다. 나이와 무관하게 여전히 나를 응원하는 시와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란 나에게 벗이며 애인이며 남편이며 0차원의 온전히 나만의 세계이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다. 간절한 시간을 묶어 보내고 나니 잠시 홀가분했던 나에게 다시 시들이 밀려오며 사유가 가득해진다. 『분홍 눈사람』 시집 발간 후 내 가슴속에는 분홍 눈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아울러 『분홍 눈사람』을 읽는 독자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또한, 비대면의 답답한 시간에도 시를 통해 많은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소통과 대화의 길이 열려 더욱 감사한 마음이다.

4. 한연순 시인에게 시란?

나는 늘 괴롭다. 사방이 모두 시의 종자를 받아하고 있으니, 앉아있는 한 뼘의 거리에서도 사물들이 자신을 시의 소재로 채택해주기를 바란다. 먼지까지도.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 떠오르는 시상을 메모하는 버릇으로 잠을 폭 자지 못하는 날이 많다. 시는 쓰면 쓸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진다. 그럴 때면 나는 무작정 기차를 탄다.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전철 이거나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핏줄처럼 이어져 있다. 하염없이 목적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노을이 진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나에게 시를 쓰는 일은 전쟁과 평화의 마음을 수없이 오가는 일이며 인생의 깊이에 도달하는 마음이기며 죽는 날까지 멈출 수 없는 축복이며 고문과 같은 시간일 것이다.

5. 인천문학상 수상 소감

제33회 인천문학상 수상 후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시편들이 조금은 단단해졌다는 걸 인정받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으나 한편으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시를 쓰라는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를 쓰는 일은 정답이 없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다. 앞으로 더욱 통증의 현상을 직시하며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사유의 길을 갈 것이다.

6. 앞으로의 꿈

올 한 해도 작년처럼 극심한 코로나19의 닫힌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도 나는 시를 통해 나를 성찰할 것이다. 누구도 자신만큼 자신을 챙기고 보듬는 사람은 없기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는 나와 잘 놀고 싶다. 네 번째 시집을 넘어선 시를 쓰고 싶은 희망 사항이 있으며 강원도 영월 무릉도원에 있는 달빛연구소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한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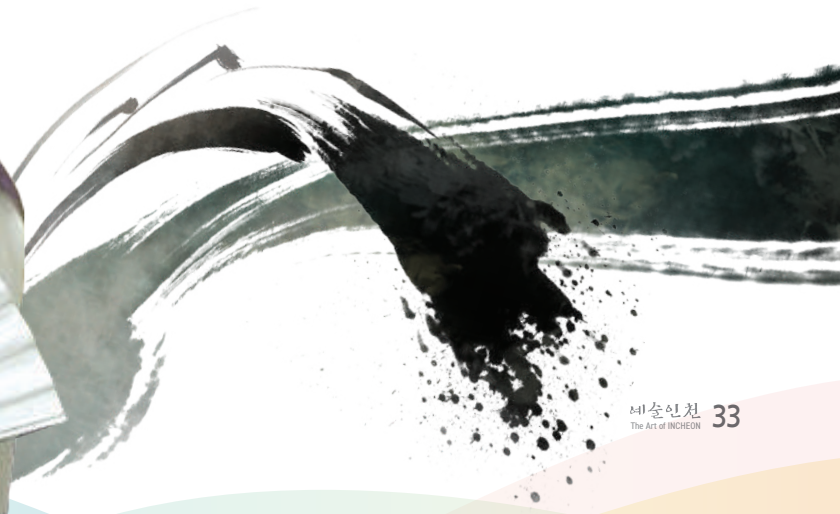
2000년 『조선문학』 시 등단
전주교육대학,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졸업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한국현대시인협회, 인천문인협회 회원
조선시문학상, 인천문학상, 인천펜문학상
시집 『방치된 슬픔』(2002), 『공기벽돌 쌓기 놀이』(2006), 『돌담을 쌓으며』(2008), 『분홍 눈사람』(2021) 출간
2021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 창작기금 선정. sisan8053@naver.com



인천에 한국 춤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무용가 - 무용협회 민영민 무용가

글 · 민영민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리듬감과 약간의 운동신경을 가진 탓에 몸으로 하는 것은 운동이든 춤이든 모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다수의 부모님처럼 나의 부모님도 보수적이고 엄한 편이셨기에 나는 예체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적인 발레리노 ‘미하일 바르쉬니코프’ 주연의 영화 “백야”를 접하게 되면서 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예술의 첫 경험으로 예술가의 삶에 대한 갈망이 가슴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전국동아리경연대회
대상수상(인천대표로 참가)



씨앗만 품은 채 시간을 보내던 나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무용가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시던 부모님이었지만 나의 뜻이 굳다는 걸 아시고는 무용학원을 알아 봐 주셨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전문적으로 무용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구미라는 작은 도시의 무용학원이었지만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을 모두 가르쳐주는 학원이었다. 처음에 배우려던 춤은 영화 “백야”에서 나오는 발레나 현대무용이었는데 한국무용 수업이 주를 이루던 그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무용을 하게 되었다. 리듬을 타야하는 한국무용 고유의 춤동작에 조금씩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또 초등학교 시절 상쇠와 부쇠로 땡가리를 치며 2년 동안 4~5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농악 부를 이끈 경험 때문인지 우리 것이 왠지 익숙했고 우리 한국무용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그런 인연들이 얽혀 한국 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다.

지는 것을 싫어하고 한번 빠지면 깊이 파고드는 성격이라 누구보다도 우리 춤을 잘 추고 싶었다. 진정한 한국 춤의 깊이를 알고 싶었다. 이런 우리 춤에 대한 갈망은 구미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큰 스승을 찾아 서울로의 상경을 결심했다. 소개도 받고 묻기도 하며 스승을 찾던 중 우연한 기회로 오철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비로소 제대로 된 한국의 전통춤 사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과 교수님 및 여러 대가 선생님들께 춤을 배우고 익히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분명 좋은 춤사위와 좋은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었다. 그게 뭘까, 매일 연습을 하면서도 그 고민을 놓

치 못했다. 꾸준히 연습하며 내 춤을 발전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인연 닿는 선생님들께 춤을 잘 추는 법을 물으며 반복적으로 연습하여도 나 스스로 내 춤에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깊이 있는 한국 춤을 연구하고 고민하던 중, 어느 순간 내 춤의 손사위, 발디딤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절제된 춤사위는 정제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장단 안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발디딤이 보였다. 너무도 기뻐다. 그리하여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가 검증은 받아 보았다. 수년간의 고민과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것은 ‘호흡’이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춤 잘 추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 이견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호흡’이었고 나름 그것을 잘 사용하며 춤을 추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호흡의 깊이는 알지 못하였다. 모두가 강조하는 ‘호흡’의 중요성은 너무도 잘 알고는 있지만, 볼 수 없는 세계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그 과정이 너무 고달파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머뭇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답을 찾을 수가 없던 그 호흡의 비법이 스스로 터득된 것이다. 그렇다. 춤은 결국 내 스스로 찾는 수밖에 없다.



2019년 춤류류 개인공연

한량무 공연사



우선 보편적인 무용 교육에서 호흡이라는 설명은 단순한 숨쉬기, 들숨 날숨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불분명한 철학이나 음양오행, 우주의 기운과 같은 것을 들어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접 춤을 출 때 적용하기 힘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들렸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가르침을 못 받은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는 춤의 깊이를 더하고 한국 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터득할 수 있는 호흡법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 관련 있는 논문, 책, 타 장르에서의 연구자료 등을 뒤적거리며 파고들기 시작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드디어 나만의 호흡법을 찾을 수 있었고 터득할 수 있었다.



승무 공연사진



승무 공연사진

먼저 호흡(呼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 혼선을 빚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호흡”이라는 것은 내쉬고 마시며 폐를 통해서 산소 등을 이동시키는 날숨 들숨인 반면, 무용에서의 호흡은 단전을 통해 기운과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행위다. 단순한 숨쉬기와는 위치나 구조적으로나 전혀 별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용의 호흡 안에 숨쉬기가 포함될 수는 있

으나 숨쉬기=무용호흡의 등식은 성립이 될 수 없다. 즉, 단전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는 기운, 에너지들을 신체로 끌어 모아서 들어 올렸다 풀어내었다 하는 작업이 무

용에서 일컫는 호흡인 것이다. 이런 호흡법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오랜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외에 춤을 잘 추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러한 호흡의 흐름을 이해한 후 그 과정을 춤추는 신체를 통해서 음악(박자)에 정확히 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박자를 타는 방법이다. 우선 호흡을 알고 이해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 몸 쓰는 요령을 알면 춤을 잘 추기 위한 큰 기술들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스스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나는 내 인생 제2의 춤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스스로 터득한 호흡법을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춤의 호흡법을 전수하고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정립한 호흡법은 제자들의 연습, 수련 시간과 개인적인 기량에 관계없이 더 깊이 있는 한국 춤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내 춤 인생은 계속 될 것이다. 제2의 고향 인천에서 더 많은 공연 활동과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해 이곳 인천을 춤으로 더 인정받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품격 있는 춤꾼들이 많이 배출되어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의 도시, 아름답고 멋진 춤꾼들의 놀이터가 될 인천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



승무 공연사진

FACO STAGE

- ‘2021 힐링콘서트 시민 곁으로’
-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



‘2021 힐링콘서트 시민 곁으로’

글 · 고종은 음악협회

“새로운 한 해가 시작 되면 좋아지겠지” 하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했던 2021년도 절망과 아쉬움 속에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침체된 가운데 너 나 할 것 없이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공연예술계는 비대면이라는 제약 때문에 시민들과 멀어지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열정 역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11월 5일, 송도에 위치한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린 ‘2021 힐링콘서트 시민 곁으로’는 코로나19로 공연장, 전시회,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더 이상의 예술영역을 보전 받을 수 없는 예술인에게 예술창작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른 분야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초청하였다. 서로를 위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계획된 공연이다.

2020년 첫 공연을 통해 어려운 예술인 후원을 위한 인천시민과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4천만 원이라는 수익 전액을 예술인 창작활동비로 지원하며 인천시민을 위한 문화향유와 예술인 활동 보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힐링 콘서트는 2021년에도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보다 좋은 콘서트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인천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피아노를 시작으로 일생을 인천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관 인천예총 회장의 지휘와 2010년 인천음악협회에서 창단하여 80명의 인천 출신의 연주자들로 편성된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었던 이번 콘서트는 전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 재즈, 라틴,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대중음악 등 예술 장르의 벽을 허물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중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인천 출신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솔리스트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콘서트를 선보이며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로 시작된 오프닝은 공연 시작의 기대와 흥분된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 했다. 니체의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슈트라우스가 뮌헨대

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책을 읽으며 작곡의 뜻을 가지게 되었고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4부로 구성했던 것처럼 이 곡도 4부로 이뤄져 있는데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중 메인 테마를 주제로 한 인트로 부분을 연주하여 공연의 화려한 막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인천에서 클래식 전문 기획사 『아티스트』와 후진 양성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나리는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Op 16’을 연주했다. 이 곡은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피아노협주곡의 하나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곡의 1악장의 도입부는 너무 유명하여 대중에게 매우 익숙하며 민족주의 색채가 짙고 서정적이고 섬세한 것이 특징으로 우리나라 정서에도 잘 맞아 많이 연주되고 있는 클래식 곡이다.

아무리 악기의 소리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목소리는 견줄 것이 없다고 했던가? 다음으로 들려준 소프라노와 바리톤의 음색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천예술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L. Refice 국립음악원 오페라과를 만점으로 졸업하며 다수의 국제콩쿨을 석권한 리릭 소프라노 최선미는 서정적이면서 감정을 호소하는 목소



리로 가곡 ‘저 구름 흘러 가는 곳’ 과 뮤지컬 My Fair Lady 중 OST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을 불러 늦가을 메마른 감성을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입장한 바리톤 권용만은 폭넓고 무게감 있는 바리톤의 정통을 보여주었다. 이광석 시인이 작사하고 조두남이 작곡한 가곡 ‘산촌’은 1958년 가을 마금산 온천에서 요양을 하고 있던 조두남이 넓게 트인 평야와 농가의 평화로운 정경에 깊은 감동을 받아 만든 곡으로 권용만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청중들의 눈앞에 펼치며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어 희극 오페라 1인자인 롯데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 중 ‘나는 도시의 만능 일꾼’을 국내 최고 바리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테크닉과 명확한 디션을 보여주며 멋지게 불러주었다.

인천출신의 현대무용가 박민영의 춤과 함께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는 시벨리우스가 태어난 고국인 핀란드가 강대국들 가운데에서 전쟁과 죽음을 직접 겪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곡으로 자유롭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현대무용의 몸짓과 함께 음악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충분했다. 이어서 연주된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은 차분했던 콘서트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다. 지휘봉 대신 파리채를 들고 입장하는 지휘자를 보면서 관객들은 입가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연주가 시작되자 파리채로 지휘하며 마치 날아다니는 벌을 잡는 듯한 퍼포먼스는 관객의 웃음을 자아냈다.





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트롬본 주자인 노종열의 상송 ‘고엽’ 연주는 서정적이고 촉촉한 선율이 감미로운 트롬본 음색과 이상적인 결합을 보였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르roi 앤서든이 작곡한 ‘타이프 치는 사람’은 타자기를 솔로악기로 내세워 오케스트라와 절묘한 호흡을 만들어 유쾌하고 위트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타이프를 치는 연주자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흥미롭고 즐겁게 만들었다.

매력적인 바이올린과 뛰어난 미모로 청중을 압도한 바이올리스트 태선이는 인천 출생의 최고 연주자로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했다. 안드레아 포스타치니 국제콩쿨 1위 및 특별상, 러시아 이폴리토프 이바노프 국제콩쿨 1위 등 국제 콩쿨을 석권하고 해외 유명 음악제 초청 연주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이다. 협연곡 ‘지고이네르바이젠’은 19세기 말 가장 화려한 바이올리스트인 파블로 사라사테의 대표작으로 이국적인 선율의 느리고 애수 락 곡조로 전개되다가 후반부에는 강한 리듬을 바탕으로 빠른 춤곡이 전개되면서 바이올린의 관능적 선율과 화려한 기교를 볼 수 있었다.

전문예술인은 아니지만 인천시의원 8명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중창단인 <시시한 중창단>은 2020년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에너지를 주기위해 함께했던 공연이 좋은 반응을 보

여 올해도 무대에 함께하였다. 노래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친숙해지기 위해 성심을 다하며 열창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어 민과 관이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 ‘에스피아 카니’와 ‘Sing, Sing, Sing’은 콘서트를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며 아쉬운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빠르고 경쾌한 템포의 두 곡의 연주에 객석은 흥분하기에 이르렀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휘자의 막장댄스(?)는 박수와 환호로 이어지며 연주의 대미를 장식했다.

‘코로나19 좌석 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900석 남짓한 객석에 자리한 관객들의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했던 콘서트였다. 하지만 메마르고 어두워진 감성에 음악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의 공허함을 채우는 힐링의 무대가 되고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준 콘서트였다. ‘힐링 콘서트 시민 곁으로’는 예술을 통한 치유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기획된 사업으로 인천예총의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인천시민의 문화향유와 공연예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보장해주는 화합의 장으로 인천시민이 기대하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성장하며 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

-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글 · 강혜은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지회장

- 행사명**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
- 참여단체** 축하공연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한국 강혜은 전통무용단, 객원초청무용수 방주련
일본 야스카와 치사토(협력, 서울발레시어터)
중국 UND Performing Arts Company
- 일정** 2021년 10월 17일(일) 공연 촬영
2021년 11월 15일(월) ~ 22일(월) 송출(유튜브)
-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주관** 사)인천예총,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작품에 대한 설명 및 비하인드 스토리

올해로 5회차를 맞는 한·중·일 교류전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적 문화 예술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한 문화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행사이다. 인천예총은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인천광역시의 취지를 담아 꾸준하게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1년도의 주제는 무용이었다. 사단법인 인천예총과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이하 인천무용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무용예술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교류의 발판을 만들고, 경직된 국제정세를 완화시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문화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문화 예술을 관람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여 인천시민들께 수준 높은 국제교류작품을 제공,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

처음 춤 교류전의 예술감독을 제안 받았을 때,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소통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국제교류 행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많은 무용가들에게 조금의 위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흔쾌히 예술감독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후 국제 교류행사를 다채롭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였다. 국제교류 행사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최대한 많은 인맥을 활용하여 풍성하게 꾸미고자 기획하였다. 오프닝은 인천무용의 가능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인천의 꿈나무인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였으며, 본격적인 메인 교류 행사에서는 모든 순수무용 장르를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한국무용, 일본-발레, 중국-현대무용 전문단체를 초청하여 프로페셔널한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은 행사 자체의 진행을 보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행사의 강행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게도 하였다. 또한 참가하기로 했던 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해외단체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상황도 계속되었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확보가 필수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장에서조차도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혼란스런 시간이 거듭되면서 나는 지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처음 계획이었던 대면 공연을 포기하고 비대면 공연으로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후 다시 심기일전하여 축하 공연단체를 새롭게 섭외하였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본팀과 중국팀도 빠르게 섭외했다. 팀별로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녹화 일정을 계획하고 이어 무사히 녹화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은 축하공연으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한중일 교류공연에는 강혜은 전통무용단, 2021년도 신인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은 방주련, 일본 발레리나 야스카와 치사토와 황경호(서울발레시어터 협력), 중국 UND Performing Arts Company가 무대를 준비하였다.

[오프닝 축하무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태평무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인 태평무는 한성준이 만들어 그 손녀인 한영숙에 전승되었으며 그 제자인 정재만으로 전해져 <큰태평무>라는 군무로 발전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신지혜, 손가에 선생님이 재구성한 작품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공연하였다.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의 화려한 시작을 알려주었으며 세련되고 우아한 태평무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공연이었다.

[한국] 강혜은 전통무용단 | 진주교방굿거리(김수악류)



김수악류 진주교방굿거리춤은 경남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완자 선생으로부터 받은 굿거리춤에 김해의 김녹주 선생에게서 전수받은 소고가락이 덧붙여져서 어우러진 춤이다. 강혜은 전통무용단의 나인선 선생님의 지도하에 한국 세 명의 무용수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 춤의 묘미를 선보였다.

[한국] 강혜은 전통무용단 객원초청무용수 | 도마, 숙명(宿命)



‘하얼빈 역두에 일곱 발의 총성, 거룩한 주재자를 위하여, 나의 삶, 나의 나라, 뜻을 품고 외친다. 하나의 명, 뜻을 품어라!’ 라는 내용으로 방주련 무용수가 공연하였다. 방주련 무용수는 2021년 신인무용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병역특례를 받은 무용수로 앞으로 유망한 무용수로 성장할 인재이다.

[일본] 야스카와 치사토, 황경호(서울발레씨어터 협력) | 지젤 (2막 중 파드되)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맞춰 1841년 파리에서 초연된 발레 '지젤'. 이번 공연에서는 순백색의 로맨틱 튜튜를 입고 달빛 아래 펼쳐지는 숭고하고 처연한 매력의 아름다운 2막 pas de deux 를 선보였다. 단아한 야스카와 치사토의 춤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발레씨어터의 솔리스트 황경호가 함께했다.

[중국] UND Performing Arts Company | 온도의 차이



‘마음은 우주의 별과도 같다. 또, 마음은 소통의 길잡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마음의 온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 마음의 온도들은 각양각색으로 빛난다. 마음의 온도는 우리 자신의 결정에 의해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있다. 인간과 인간의 감정적인 대응을 포함한 모든 소통이 마음의 길을 지난다. 이런 인간관계는 인

간 내면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내면의 판단이란 곧 마음에서 오는 온도에 의해 전달된다. 그렇다면 관계의 삐걱거림은 아마 그 온도의 차이로 인한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오는 건 아닐까? 당신은 느끼나요? 온도의 차이를...’이라는 내용을 속삭이듯 다양한 움직임으로 꾸며진 무대였다.

[엔딩 축하무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여명의 울림



1985년 무용가이자 안무가 국수호가 발표한 <북의 대합주> 작품을 바탕으로 한 <여명의 울림>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무용과와 타악 연희과 학생들의 기량에 맞추어 김장우 선생님께서 재구성하였다. 토속적이면서도 강렬한 북소리의 울림을 표현한 작품으로 장엄함과 섬세한 북의 울림과 강약을 밀도 있게 보여준 무

대였다. 이번 한중일 동아시아 춤교류전의 대미를 장식한 이 작품은 비대면으로 공연한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청하고 싶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은 무사히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많은 춤꾼들이 너른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자유로이 멋진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린다.

지상갤러리2

- 인천사진작가협회

The Art of Incheon

기획사진전 ‘흔적을 찾아서-강화 소창’

인천사진작가협회

소창은 100% 목화솜으로 만든 23수로 짜낸 천연 면직물이다. 기저귀, 배내옷에서부터 관을 옮길 때 관을 묶는 끈으로도 소창을 사용했다. 소창은 사람의 ‘탄생에서 귀천까지’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직물이었다.

강화도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소창 등 직물 산업이 발달해온 곳이었다.

1920년대 초부터 강화군의 주요 산업 중의 하나가 되어 현대 인조 직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매우 번성했었다.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강화읍에 30~40개의 소창공장이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는 100곳에 이르는 소창 공장이 존재했지만 나일론 등 합성섬유의 상업화에 밀려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화직물’ 산업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어 현재 7개의 소창 공장만이 가내수공업으로 소규모로 생산하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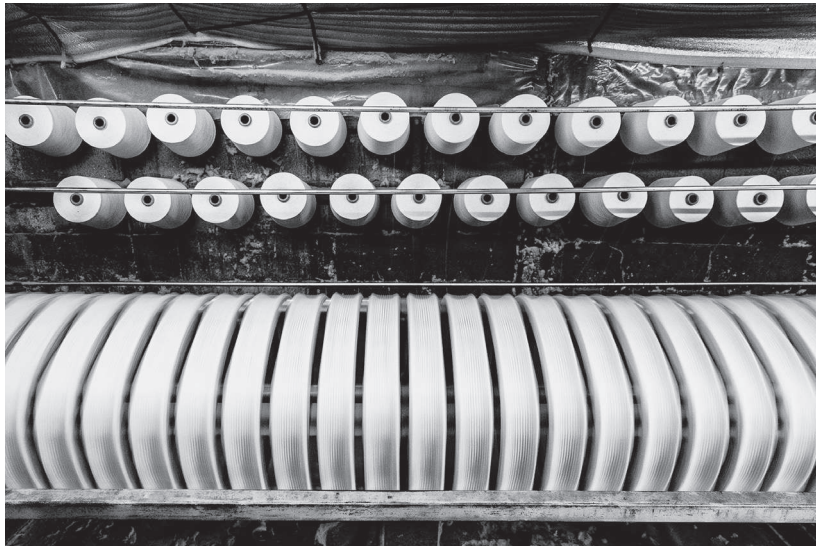
약 100년의 전통을 가졌음에도 산업화로 외면당했던 소창 직물, 근대 직물산업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다.

열악한 가내수공업의 한계와 창업자의 고령화로 강화 소창 공장이 하나 둘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대산업 유산인 강화 소창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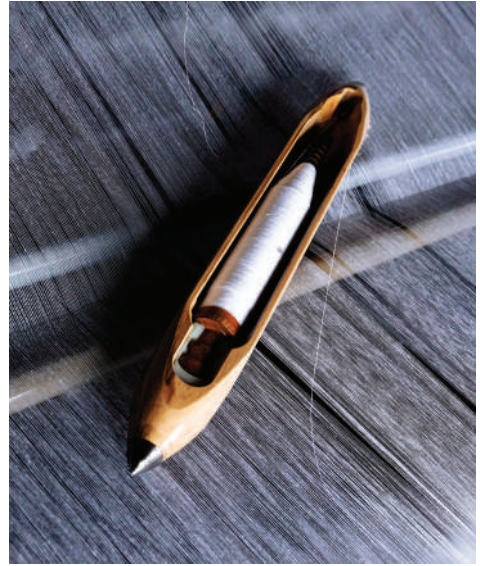
전국에서 소창은 오직 강화에만 남아있으며 근대의 역사를 이어온 현황과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가치와 역사를 재조명 해본다.













기획특집 예술경영 리더십

- 리더로서 나의 연주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리더로서 나의 연주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 · 김희봉 현대자동차 인재개발원

피아노는 음악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악기다. 피아노의 건반은 모두 88개인데 흰색 건반 52개와 검은색 건반 36개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각각의 건반은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같은 음(音)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곡은 피아노를 통해 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피아노 역시 언제 어떤 재료로 누가 만들었는지 등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관심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연주자다. 같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동일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연주자에 따라 곡의 해석도 다르고 느낌이나 감동도 다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단 피아노에만 국한될까? 그렇지 않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피아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이 조직과 리더에게도 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로 리더십과 관련된 여러 도서에서는 리더를 연주자나 지휘자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피아노의 건반을 들여다보자. 비슷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같은 음을 내는 건반은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 구성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소위 말해 비슷한 스펙을 지니고 있거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각자의 특징과 강점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건반만으로는 곡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연주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한 곡일지라도 하나의 건반만으로는 연주가 안된다. 무엇인가를 연주하려면 여러 개의 건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건반이 내는 음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른바 건반들간 팀워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조직에서도 다를 바 없다.

아울러 자주 누르는 건반이 있는 반면, 아주 가끔씩만 누르게 되는 건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가끔씩 누르는 건반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면 안된다. 그 건반에



서 나오는 음으로 인해 곡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음이 없으면 곡이 밋밋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리더가 구성원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보다 더 명확하다.

일단 리더라면 우선적으로 각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마치 각각의 건반이 어떤 음을 내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진단을 하고 면담을 하는 이유는 이를 보다 확

실하게 알고자 함이지 정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리더라면 각 구성원들의 특징과 강점에 기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리더는 모든 구성원들이 제대로 자신의 음, 즉 고유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내 소외된 구성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몇몇 구성원들에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는 팀워크도 흐트러지게 되며 기대했던 연주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순간 화음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순간은 있기 마련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리더가 주변에 아름다운 곡을 선사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건반이 어떤 음을 내는지도 모르고 누를 수도 없다면 제 아무리 좋은 피아노일지라도 장식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리더 스스로가 부단히 연습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희봉

언론인, 아시아엔(칼럼니스트)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 박사
대한리더십학회 상임이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이사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예총동정 / REVIEW & PREVIEW

The Art of Incheon

- 인천예총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처럼 열정적이고 큰 야망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인천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단체
협회장님과 임원,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년간 고통과 절망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처럼 곧 회복될 일상의 기대와 희망으로
힘찬 임인년(壬寅年)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예총 회장
이종관



2021년 제물포 예술제 「Power of Art in 제물포」

- 기간 : 2021년 10월 8일(금) ~ 15일(금)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1·2전시장
- 주최 : 인천예총
- 주관 : 인천예총, 9개 회원단체
- 내용 : 인천의 순수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인천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인천시민들에게 소개하여 예술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예술가와 관객이 서로 이해하며 인천지역문화 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



2021년 한·중·일 동아시아 춤 교류전

- 기간 : 2021년 11월 15일(월) ~ 22일(월)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 : 인천예총
- 주관 : 한국무용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 올해로 5회 차를 맞는 한·중·일 교류전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나가 국제적 문화 예술 소통의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한 문화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함.



2021년 힐링 콘서트 시민 결으로

- 기간 : 2021년 11월 5일(금) 19:30
- 장소 :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 주최 : 인천예총
- 주관 : 인천예총
- 내 용 :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트롬본, 현대무용, 라틴무용, 타이프 퍼포먼스 등, 평소 귀에 익은 멜로디와 희망찬 곡 위주의 다채로운 레파토리 구성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즐거움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해설이 함께하는 진행과 아마추어의 무대를 통해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치유와 위안을 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가고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저물어 가는 해에 실어보내고 새해엔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어떤 해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한해가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악협회장
유은자

인천국악회관 및 국악협회 & 인하대학교 산단측 MOU 협약 체결

- 일시 : 2021년 12월 21일 15:00
- 장소 : ZOOM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행)
- 참석자 : 인하대 산단측 및 유은자 지회장, 김연중 부지회장, 김현정 관장 등

2021년 제58회 정기총회 (인천국악협회)

- 일시 : 2021년 3월 25일
- 장소 : 인천국악회관 2층
- 참석자 : (사)한국국악협회 윤리위원장 방영기 이사, 정철기 이사, 인천국악협회 감사포함 32명 참석 / 9명 위임 / 5명 불참
- 협의내용 : 안건①. 2020년 정산 감사보고
안건②.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안건③. 지회장 선거 및 임원개선



2021년 인천국악대제전 전국국악경연대회

- 기간 : 2021년 9월 25일(토) ~ 26일(일)
- 장소 : 예선- 인천국악회관,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본선- 인천 서구문화회관
- 주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 국악계승발전과 국악대중화에 앞장서고 우수국악인의 배출 및 전통보급을 위하여 5개 부문 경연



미추홀! 젊은 국악의 소리

- 일시 : 2021년 10월 13일(수)
- 장소 :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 주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수 있는 국악가요를 국악관현악 선율에 맞추어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천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함. 우리나라 고유의 소리와 국악가요, 신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2021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썩”

- 일시 : 2021년 6월 ~ 11월 일요일 16:00
- 장소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야외 공연장 및 풍류관
- 주최 : 인천광역시,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내용 : 인천국악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모체로서 2021년 우리 가락 우리마당 “얼썩”은 역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온 무형문화의 보존과 더불어 현재를 기준으로 악기와 연주, 장르를 총망라하여 좋은 음악으로 인천의 국악을 알리며, 인천국악의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재탄생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연(전시)이 연기 및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과 연습 자체가 어려워 많은 고통을 겪으신 인천의 예술인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으니 지난 어려움을 발판 삼아 우리 인천예총 9개 회원단체 및 강희지회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인천의 예술인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지켜오는 예술인들을 보며 저 또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인천의 예술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시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자신의 예술영역을 확대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현명하게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 힘입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인천무용협회에서 좀 더 솔선수범하여 인천의 예술인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인년(壬寅年) 새해 호량이 기운을 받아 항상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이종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협회장님과 회원분들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인천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용협회장
김주성



2021, 제29회 인천전국무용경연대회

- 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2일(일)
- 장소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주최 : 인천예총
- 내용 : 전국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중장년)의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와 정서교육 함양, 무용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이루고 무용에 재능이 우수한 무용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함으로써 무용 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획



2021, 제30회 인천무용제

- 일시 : 2021년 6월 19일(토) ~ 20일(일)
- 장소 :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수봉문화회관 무용연습실
- 내용 : 인천의 무용을 전국에 알리고자 인천의 대표무용 단체를 선발하여 '전국무용제'에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써 인천의 대표적인 무용축제임. 인천의 무용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내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획. 30주년 기념 포토존, 워크숍 등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었음



2021, 제30회 전국무용제

- 일시 : 2021년 10월 5일 ~ 6일 (솔로, 단체부문)
- 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 내용 : 전국무용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0일간, 1일 2 작품씩 지역대표무용단이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인천광역시 대표팀은 2021년 6월 진행한 인천무용제 경연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카르나인 무용단의 <충(蟲)>(단체부문)과 나형우 안무가의 <자리>가 참가하여 나형우 안무가가 우수작품상을 수상



2021, 제9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

- 일시 : 2021년 11월 11일~13일
- 장소 :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 내용 : 인천의 시민 관객에게 좋은 작품을 통하여 무용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무용예술 발전 및 신진예술인 발굴, 참가작품의 연속적 공연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해외 예술작품은 영상으로 컨택하여 공개하였고, 인원 제한으로 소수의 관객들을 만났으나, 온라인으로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무용협회는 보다 확대된 예술적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를 통해 보다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함

인천 사랑을 알리고 문학을 공감하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과 인천예총 산하 9개 분과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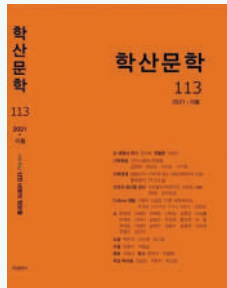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많은 문인이 창작활동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함께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조금 더 희망을 품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해의 창을 열고자 합니다.

올해도 『학산문학』 및 『인천문단』과 각박한 시대에 인천을 소재로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와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천도시철도 안전문에 시詩』게시, 『인천 시민문예대전』 공모를 통해 인천 사랑을 알리며 문학을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협회장
함용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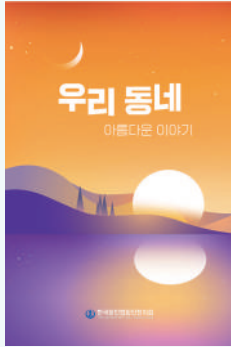


계간 『학산문학』 113, 114호 발간

1991년 12월 27일 창간호를 발간했던 『학산문학』이 2021년 12월 1일 가을호 113호와 겨울호 114호를 발간했다. 29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산문학은 꾸준한 발행과 수준 높은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별히 지역 문예지 특성을 살린 <인천의 공간을 걷다> (인천의 역사 공간을 찾아 지역작가들이 현장 답사 후 사진과 문학 작품 등을 담아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기행에세이)와 <인천의 공간을 읽다>는 인천을 담은 문학작품의 재발견과 역사적 정보 등 다양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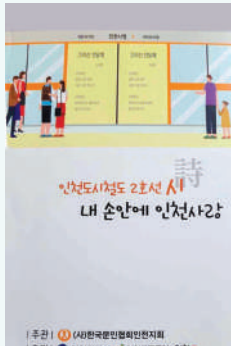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이난희 주간의 사임으로 새로 이성률(시인)을 편집 주간으로 임명.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 발간

내가 사는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와 아름다운 동네 이야기를 엮은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간.

『우리 동네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을에서 겪은 동네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더불어 애乡심을 고취함.



내 손안에 인천사랑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전문에 시 게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내 손안에 인천사랑』 인천도시철도 안전문에 시詩 게시 사업으로 지난 11월 26일 인천시청역 지하 문화마당에서 개막식을 개최. 총 80편의 시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상·하행선 안전문에 게시함.

함용정 회장은 “인천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인천도시철도에 문학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선정된 80편의 시를 엮어 만든 『내 손안에 인천사랑』 소책자를 발간해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



제33회 인천문학상 한연순 시인 수상

2021년 12월 10일 제33회 인천문학상에 시집 『분홍 눈사람』을 펴낸 한연순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

문광영 평론가의 심사평에서 3권의 시집을 낸 바 있는 한연순의 『분홍 눈사람』은 서정시로서 세계인식과 통찰을 보여 주면서 소재를 상큼하게 갈무리하는 시 맛이 돋보이고 순간적 사유와 감성을 절제하여 처리하는 균형미, 적절한 상상력의 등가성을 살린 소통 방식, 치밀하고 정갈한 시적 언어의 운행과 주제를 형상화하는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



제32회 인천시민문예대전 『피아노 프리즘』 발간

코로나19로 인해 제32회 시민문예 당선자 시상식은 12월 10일 오후 5시 30분 수봉문화회관 1층 회의실에서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

시 부문 당선자는 이경미(부평구 거주), 소설 부문 당선자 김도윤(부평구 거주), 수필 부문 당선자 이지운(부평구 거주), 아동문학 당선자 김은주(연수구 거주)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음.



2021 인천문협 송년 비대면 시상식 소식

코로나19로 송년회 행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송년 시상식을 수봉문화회관 마당 및 기타 장소에서 시상자만 참석해 행사 진행.

* 12월 10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표창상 : 박혜숙 수필가, 장보민 수필가.

* 12월 15일 인천예총 태동철 시인 공로상, 손성란 아동문학가 시의장상 수상.

2022년 회원의 권익과 가치창조 등 보다 발전하는 미술협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인천미술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천예총 이종관 회장님과 부회장님, 이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2021년 인천미술협회 회장으로의 소임을 다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미술협회는 인천예총이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인천예총이 추구하는 공정과 예술발전을 지향하면서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는 모든 회원의 권익과 가치창조 등 보다 더 발전하는 인천미술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인천예총 이종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협회 회장님과 회원분들의 건강과 행복, 인천예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미술협회장
전운영



인천미술협회 임원개선

2021년 2월 1일 취임한 인천미술협회 유동우 사무국장이 개인사로 퇴임 후 2021년 11월 1일 이태경 사무국장이 취임.



2021 제57회 인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 기간 : 2021년 10월 29일(금) ~ 11월 4일(목)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소 전시실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작가 150여 명, 전시관람객 500명 예상



2021 제57회 전국 공모 인천미술대전

- 기간 : 2021년 11월 27일(토) ~ 12월 2일(목)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전관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작가 450여 명, 전시관람객 1,000명



2021년 인천 아트페스타 (INAF)

- 기간 : 2021년 12월 4일(토)~12월 8일(수)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전관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부스 90개, 전시관람객 1,200명



2021년 인천미협사생작가회 전시전

- 기간 : 2021년 12월 17일(금) ~ 12월 23일(목)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술홀실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작가 30여 명, 전시관람객 500명



2022년 인천미술한마당 전 -예술플리마켓-

- 기간 : 2022년 3월 25일(금) ~ 3월 31일(목)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중 전시실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작가 500여 명 예상, 전시관람객 1,500명 예상



2022년 인천미술 미(美)추출데이

- 기간 : 2022년 5월 중 예정
- 장소 : 인천수봉 공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주최/주관 : (사)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참석인원 : 참여작가 300여 명, 전시관람객 500명 예상

문화예술인의 인화단결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뚝뚝 뭉쳐서 새로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보다는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인천예총의 인화단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인천예총의 위상을 확립하고 예술인들의 사기는 물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해는 흑호의 해입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나아가라는 의미로써 2022년은 인천예총이 희망을 잃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작가협회장
김재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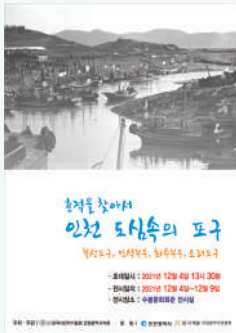
제65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

- 기간 : 2021년 10월 30일 ~ 11월 3일(5일간)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제1, 2전시실
- 참가인원 : 관람 250여 명
- 주최/주관 : (사)사진작가협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인천예총,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 내용 : 한국촬영대회의 효시로 해양도시 인천과 인천의 일상을 모델과 접목하여 촬영하는 대회로서 최장수 촬영대회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온 촬영대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체적 촬영 대회 불가로 인천의 임해지역을 지정하고 촬영 안내 도우미를 파견하여 진행함



2021 Incheon Photo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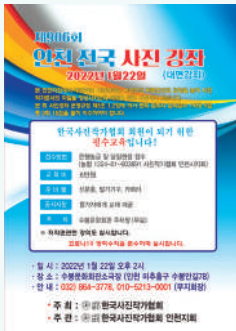
- 기간 : 2021년 11월 20일 ~ 11월 24일(5일간)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전관
- 참가인원 : 관람객 600여 명
- 주최/주관 : (사)사진작가협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인천예총
- 제82회 인천광역시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 제33회 인천사진인연합전
- 제39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



2021 기획사진전

『흔적을 찾아서-인천 도심속의 포구』

- 기간 : 2021년 12월 4일 ~ 12월 9일(6일간)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1전시실
- 참가인원 : 관람객 250여 명
- 주최/주관 : (사)사진작가협회
- 후원 : 인천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인천예총, 인천일보, 경찰합동신문
- 내용: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사라져가고 변화하는 인천 도심속에 있는 포구를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고 도시와 어촌의 모습이 공존하는 인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며 사진작가의 시각으로 인천 도심속의 포구를 재해석 하고자 함.



제906회 인천 전국 사진 강좌

- 기간 : 2022년 1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강좌로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제906회 인천 전국 사진 강좌는 사진인의 바른 인성과 교양을 높여 사진작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굳은 의지와 용기로 희망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2022년의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민속에서 임인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여, 검은 호랑이의 거침없고 웅맹한 기운이 가득한 해입니다. 음양오행으로 풀면, 임(壬)은 수(水)의 기운을, 인(寅)은 목(木) 기운을 의미한다고 하여,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새 희망으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믿어 왔습니다. 이러한 옛 선인들의 믿음처럼, 우리 인천예술인과 연극인 가족 모두에게 새해에는 검은 호랑이의 굳은 의지와 용기로 충만하여, 새싹처럼 날마다 한 뼘씩 쑥쑥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 해 연극인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연극협회장
최중욱



황해 - 끝나지 않은 전쟁

- 기간 : 2022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3일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인천연극협회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내용 : 2021년 원로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원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화예술콘텐츠를 개발하고자한다. 또한 문화 취약 계층,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원로 예술인, 단체의 활동기반을 제공.



제40회 인천연극제

- 기간 : 2022.04.01. ~ 2022.04.30.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주최/주관 : 인천연극협회
- 후원 : 인천광역시, 한국연극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예총
- 내용 :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지역예선대회로 진행된다.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전문 연극인들로 구성된 13개의 극단이 참여하여 경연을 통해 대한민국 연극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할 작품을 선정.



제26회 인천청소년연극제

- 기간 : 2022년 6월 7일 ~ 2022년 6월 19일
- 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주최/주관 : 인천연극협회
- 후원 : 인천광역시, 한국연극협회, 인천예총, 인천시교육청
- 내용 :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의 인천지역예선대회로, 인천광역시를 소재로 하는 고등학교의 연극부 동아리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연을 통해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에 출전할 작품을 선정.

하나의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결속의 영원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한받는 코로나 팬데믹 환경속에서 예술인 모든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 송구영신의 때를 맞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부디 건강 지키시고 저마다의 예술인생에 서광이 비치는 빛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거목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소중한 뜻이 굳건히 뿌리 내려 협회 발전을 시키는데 헌신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제 마음에 남은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은 2022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영양분으로 쓰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이러한 정성들이 모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며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속의 영원함과 아울러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원하며 하고자 하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연예예술인협회장
이배원



2021년 제25회 i-POP페스티벌(온라인 공연)

- 일시 : 2021년 6월 26일(토) 14시
- 장소 :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제25회 i-POP페스티벌은 인천출신 가수 古박상규님의 조약돌 등의 노래와 국악가요 및 다각적인 장르의 연주와 인천에서 자생하는 음악콘텐츠와 인천출신 걸그룹/파스텔걸스, 인천드림팝스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맞춰 인천의 노래를 인천출신 가수들과 국악가요 가수 서제미의 열창으로 공연을 개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방송 후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줌으로써 인천시민 및 다수의 문화 향유에 이바지하고 인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



2021년 제2회 에이블과 함께하는 거북이가요제(온라인 공연)

-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13시
- 장소 : 에이블스튜디오

인천광역시에서 최초로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요제로서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사업에 직접 공연스텝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상승에 기여하였고 비장애인 인천시민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비장애인도 잠재적 수혜자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며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음악도시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거점도시가 되는데 초석을 다지고 홍보효과에 기여하였다.



2021년 제25회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경연대회(온라인 공연)

- 일시 : 2021년 11월 14일(일) 13시
- 장소 :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280명이 참가하여 19개 팀의 청소년이 본선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을 겨루어 청소년의 생활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립과 미래 문화 예술양성에 이바지함. 실용음악을 통한 인천 청소년 문화주권 시대를 열었으며 수준높은 전국 대회로서 음악도시 인천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한 전국적인 실용음악 경연대회로서 방송섭외 요청 등 도전적, 역동적으로 세계를 향한 청소년 대중 문화예술인 양성



2021년 제8회 아름다운 인천실현 다문화예술제

- 일시 : 2021년 7월 3일(토) 14시
- 장소 :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다같이 모여서 잘사는 국제도시이자 음악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 거주 어린이로 구성된 “다문화 어린이합창단”의 가요와 대한민국 퍼커션의 대부 정정배가 단장으로 하고 보컬 고아라가 있는 3인조 라틴트리오의 라틴음악, 웅장한 인천드림팜소케스트라의 4개국(멕시코, 페루, 미국, 체코) 연주곡 그 외에도 중국 전통악기 얼후 연주와 카자흐스탄의 통부라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인기개그맨 조원석의 사회로 인천시민에게 온라인으로 선사.



2021년 제24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종합예술제(가요경연)

- 일시 : 2021년 10월 17일(일) 14시
- 장소 : 인천 국악회관 2층 공연장

근로자가요제를 통해 근로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창작, 문화, 예술활동 지원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축제 분위기를 고양.



2021년 제1회 수봉산 동네음악회

- 일시 : 2021년 11월 9일~12월 5일
- 장소 : 인천광역시내외 수봉공원

생생한 라이브 음악을 평범한 일상속에서도 인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로 힘겨워하는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 수봉공원의 별마루축제와 연계하여 기획된 사업으로서 100여 개가 넘는 팀이 지원하여 가수 제이닉, 서종은, 김재훈, 전시온 팀 더 웨스, 라두, 오아밴드, 삼똥, 솔디바, 9297 10팀이 뿔뿔히 락, 발라드, 국악가요, 어쿠스틱 합창, CCM, 일렉트릭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인천시민에게 선사하였고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



2021년 제2회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 에이블

- 일시 : 2021년 6월 1일~11월 30일
- 장소 : 에이블 스튜디오

인천연예예술인협회는 에이블문화장애인협회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를 중시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여 참가한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으로 구성된 팀이 인천장애인합창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외에도 향초를 직접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칼럼 배워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장애인 인식개선효과를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창작의 열정으로 예술인들이 맘껏 활동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임인년 새해, 인천시민 여러분과 인천예총 9개 회원단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저희 영화인협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전국 미추홀 단편 영화제 사업' 등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협회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의 열정으로 무대와 전시회에서 맘껏 활동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인협회장
송인혁



2021 영화 아카데미 교실 수료식

- 일시/장소 : 2021년 10월 30일 / 인천영화인협회 강의실
- 영화와 영상미디어교육의 새 지평 마련하는 영상문화 콘텐츠 구축과 일반인, 학생 등 영상미디어에 관심있는 분들이 영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의 영화인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5회 미추홀필름페스티벌 시상식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20일 / 국악회관 공연장
- 전국의 대학교, 영상 예술고등학교, 영상동아리들의 축제로 인천의 영상과 영화 수준을 전국에 알리는 단편영화제. 금년 5회차 행사로 큰 호응속에 행사를 종료.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세 끝날 줄만 알았던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획했던 수많은 공연과 예술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안은 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예술인들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공연하고 관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심과 고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인천음악협회는 이 어려움을 대응하여 야외음악회, 등갯길 음악회 등 많은 연주활동과 유튜브 생중계나 줌이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점차 공연을 늘려가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으로나마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방법과 노력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욱 예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임인년에는 늘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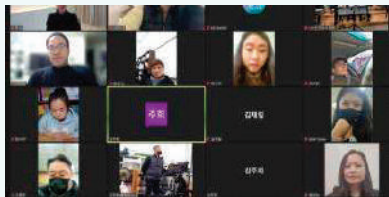


음악협회장
백종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상 속 음악회 가져

인천음악협회는 60여 개의 초, 중학교를 찾아가 등갯길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도심뿐만 아닌 강화의 있는 분교도 찾아가 아이들을 위해 연주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음악제를 개최하여 앙상블의 밤, 관악의 밤,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연주를 하였고 연수심포니를 창단하여 성대하게 창단 연주를 마칩. 2022년 상반기 활동 계획은 인천음악협회 전국 학생음악 콩쿨을 계획 중이며 콩쿨에서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여 협주곡의 밤 또한 계획 중.



인천음악협회 정기총회 개최

12월 24일 인천음악협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여 임원개선 및 회장 선출의 대한 안건으로 줌으로 현장 중계를 실시하여 모든 임원단과 회장이 연임



제24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 지휘 : 이동현 □ 연주 : 연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 일시 :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19시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인천광역시지회 □ 후원 : 인천광역시
- 인천의 음악 영재 발굴을 위해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를 통해 검증된 음악 꿈나무들에게 인천 문화의 중심지인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음악가로서의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랜 세월 침체되어 있던 인천의 청소년 관악단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 전 지역에 학교 윈드 오케스트라들에게 단독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하나로 단결된 연합관악 공연을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



2021 인천음악제

<개막공연>

- 지휘 : 이종관 □ 연주 : 연수 심포니 오케스트라
- 일시 : 2021년 9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 연수구 센트럴파크 야외공연장

<팝 콘서트>

- 지휘 : 김용호 □ 연주 : 인천 심포니 오케스트라
- 일시 : 2021년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6시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양상블의 밤>

- 연주 : 웨스트 윈드 양상블, BEM Music, 디아스테마, 색소폰양상블, 스칼라 오페라단 클라넷 양상블, 오늘은 맑음
- 일시 :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19시 30분
- 장소 : 엘림아트센터

<관악의 밤>

- 지휘 : 백종성 □ 연주 : 웨스트 윈드 오케스트라
- 일시 : 2021년 9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 장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연합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양상블, 대중들이 사랑하는 팝 콘서트, 연합 관악단의 공연으로 최대의 음악 공연으로 성장시켜 인천 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 축제로 발전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라고 하는 사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 공연단체 : 문화발전소 깃들
- 공연일시 : 10월 8일(금) 오후 7시(1회)
- 공연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관람료 : 5,000원(수봉관극 회원금액)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관 :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화발전소 깃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내용 : 2020년 도심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좀비바이러스. 학교 옥상에 생존자들이 모인다. 학생, 교사, 군인, 그리고 좀비들을 잡으면서 옥상에 도착한 세연. 세연은 물리지 않았지만 좀비의 피가 묻어있다. 세연은 감염되었을까?



방방곡곡 문화공감 정크, 클라운

- 공연단체 : 사단법인 극단 현장
- 공연일시 : 11월 13일(토) 오후 5시(1회)
- 공연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관람료 : 5,000원(수봉관극 회원금액)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관 : 인천수봉문화회관/ 사단법인 극단 현장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내용 : 놀기를 무척 좋아하는 클라운들은 끊임없이 놀이와 장난으로 서로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 버려진 드럼통, 자전거 핸들, 깨진 바가지, 찌그러진 냄비와 함께 노는 것은 마치 놀이동산의 미로 탐험처럼 즐겁다. 드넓은 들길의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꿈을 신고 달리고, 선풍기 날개로 헬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면서 전쟁놀이도 하고 고장난 청소기와 호스를 이용하여 태풍과 물을 만들고,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와 바가지는 어느덧 물고기가 되어 환상속으로 들어간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크로키키 브라더스

- 공연단체 : 크로키키 브라더스
- 공연일시 : 12월 4일(토) 14시, 17시(2회)
- 공연장소 : 인천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관람료 : 5,000원(수봉관극 회원금액)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주관 : 인천수봉문화회관/ 크로키키 브라더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내용 : ‘드로잉’이라는 시각예술 장르와 공연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연 형태인 ‘드로잉 서커스’를 만들어냈으며, 드로잉 서커스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고 있고, 완성된 그림이 아닌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희열과 생각지 못한 결과를 통해 웃음을 주고, 화려하고 기발한 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와 희열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고 함께 즐기고자 한다.

미추홀문화회관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문화예술강좌』 운영

□ 기획의도

“생활 속에 함께 느끼고 문화의 향기를 채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 개요

가. 정규 프로그램 일정

80 가을학기	81 겨울학기(3개월)	82 봄학기(3개월)	83 여름학기(3개월)
2021.09.01.(수) ~11.20(토)	2021.12.01.(수) ~2022.02.19(토)	2022.03.02.(화) ~05.21(토)	2022.06.02.(목) ~08.20(토)

나.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8개 강의실

다. 프로그램 내용

① 문화아카데미과정

- 지역 문화예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단계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어린이발레과정, 어린이미술과정, 서예과정, 성악과정 등 4가지로 운영하고 있음

② 일반 문화예술 강좌

- 지역 시민이 문화예술 강좌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
- 운영분야 : 음악, 무용, 시각예술, 공예, 어린이 융합문화예술 강좌



미추홀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년 미추홀 소소(焔焔)음악회』 개최

공연타이틀	문화가 있는 날 2021 “미추홀 소소(焔焔) 음악회”	
공연테마	어울림 그리고 기쁨	
공연명	프로이데 기타듀오 “Healing Concert”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시리즈 “이중섭편”
공연일시	2021.08.25.(수) 19시	2021.09.29.(수) 19시
공연내용	프로이데(독일어: 기쁨)는 청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2중주 기타공연	황소와 어린이를 그린 화가 “이중섭” 화가 이중섭과 작품을 큐레이터 해설과 더불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접수방법	전화접수	
문의	032-765-0220 / 0250	



<p>4-6월 여름 그리고 기쁨</p> <p>4.28 & 7PM</p> <p>로만파티라오의 "봄, 사랑 그리고 음악" 콘서트</p> <p>공연소개 로만파티라오의 봄, 사랑 그리고 음악 콘서트 4월 28일(수) 저녁 7시, 7PM</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프로이데 기타 듀오</p> <p>4.28 & 7PM</p> <p>Healing Concert</p> <p>공연소개 프로이데(독일어: 기쁨)는 청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2중주 기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9-11월 가을 그리고 기쁨</p> <p>8.25 & 7PM</p> <p>프로이데 기타 듀오 "Healing Concert"</p> <p>공연소개 프로이데(독일어: 기쁨)는 청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2중주 기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시리즈</p> <p>8.25 & 7PM</p> <p>황소와 어린이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p> <p>공연소개 황소와 어린이를 그린 화가 이중섭 화가 이중섭과 작품을 큐레이터 해설과 더불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6.30 & 7PM</p> <p>로만파티라오의 "봄, 사랑 그리고 음악" 콘서트</p> <p>공연소개 로만파티라오의 봄, 사랑 그리고 음악 콘서트 6월 30일(수) 저녁 7시, 7PM</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프로이데 기타 듀오</p> <p>6.30 & 7PM</p> <p>Healing Concert</p> <p>공연소개 프로이데(독일어: 기쁨)는 청중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2중주 기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9-11월 가을 그리고 기쁨</p> <p>9.29 & 7PM</p> <p>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시리즈 황소와 어린이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p> <p>공연소개 황소와 어린이를 그린 화가 이중섭 화가 이중섭과 작품을 큐레이터 해설과 더불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p>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시리즈</p> <p>9.29 & 7PM</p> <p>황소와 어린이를 사랑한 화가 "이중섭"</p> <p>공연소개 황소와 어린이를 그린 화가 이중섭 화가 이중섭과 작품을 큐레이터 해설과 더불어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p> <p>공연장소 미추홀문화회관 106호 공연장</p>

올해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2021년을 맞이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도 달력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팬데믹 이전의 시대를 기대하며 활기를 찾았던 인천의 문화예술계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에 다시 위축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인천예총과 회원협회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침 속에서도 획기적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라는 당위성 있는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분주히 달려왔다.

2021년 문화예술사업을 마무리하는 손길들을 보면서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낸 예술가들의 열정과 회원협회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 눈에 보이듯 느껴진다. 예술인천 원고를 한 장 한 장 채워 넣는 편집부원들의 표정은 보람과 긍지로 가득 차 있다. 단지 지면의 제한으로 더 많은 소식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예술인천 32호」는 코로나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2021년 한 해 인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헌신한 예술인들 공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도 더욱 회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검은 호랑이의 상서로운 기운처럼 온 세상에 건강한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해본다.

2021년 12월 「예술인천」 편집진 일동